

## News

### '코로나19 재유행 악몽?' 미·유럽증시 털썩...다우 6.9% 폭락

연합뉴스

뉴욕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861.82포인트(6.90%) 하락한 25,128.17에 거래를 마쳐...약 13% 대폭락했던 3월 중순 이후로 석 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가운데 따른 조정의 성격이 강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 '2차 유행'의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여...미국 내 코로나19 환자는 200만명을 넘어...

### 기업銀, 올해 3번째 유상증자 단행

팍스넷뉴스

IBK기업은행이 올해 세 번째 유상증자를 단행...이사회를 열고 신주 1,241만2,204주를 발행하기로 결의...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 5.0% 할증한 8,685원으로 결정... 기업은행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1,077억9,999만1,740원을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올해만 총 7,000억여원을 조달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 결정

연합뉴스

기업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 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에 투자한 이들에게 '선(先) 가지급 · 후(後) 정산'하는 안을 결정... 개별 사적 화해계약 통해 먼저 가지급금을 받고, 나중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

### 곳곳에 경고음... '금융건전성 악화' 부실뇌관 우려

데일리안

국내 5대 은행들의 기업대출(32조7천억원), 장외파생상품 관련 위험가중 자산(16조원), 시장 위험 가중자산(6조6천억원) 등 위험가중 자산은 무려 73조원 늘어... 금융당국 관계자, "1997년 외환위기 때에도 최악의 상황을 말해주는 지표는 1년쯤 지나고 왔다...현재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보험사 대출잔액 238조원...주택담보대출 증가 전환

연합뉴스

보험사 전체 대출채권 잔액 직전 분기 말보다 3조7천억원(1.6%) 증가한 238조4천억원...감소세를 보이던 보험회사 주택담보대출 올해 1분기에 다소 늘어난 영향...올해 3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4조1천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천억원 늘었다. 4분기 연속 감소한 이후 증가...

### 중학생도 타게 된 킥보드, 보험은 全無

조선비즈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대중교통 대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났지만,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이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현재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전무...일부 보험사가 일반 보험의 단체 가입 형태로 전동 킥보드 보험을 취급

### "필요 시 공매도 금지 연장...증권사 외환 규제 검토"

이데일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해제 기한이 돌아와도 갑자기 환원하지는 않을 것...제도개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제도개선과 함께 아마 환원...더 연장 필요하면...증권사 외화유동성 관리 민낯 드러나...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코로나19사태로 전 세계가 위험하니 미스매치 문제 발생...

### 비상장주식거래 인기에... 서비스 확대 나선 증권사

파이낸셜뉴스

최근 증권사들이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서비스를 새로 선보이거나 재정비...삼성증권은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업과 함께 '증권플러스 비산장' 오픈... "비상장 스타트업 주식 거래 수요 늘어...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하기 쉽지 않다...정부가 벤처, 스타트업 육성 내세우고 있어 관련 투자 관심...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